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전주에 모인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 개최 세계음식창의도시 대표단 등 30여개 도시서 약 150명 참석

전 세계 30여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표단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일부터 내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 일원에서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유네스코 본부 대표와 세계음식창의도시 대표단, 음식창의도시 주한대사, 국내창의도시 및 창의후보도시 대표 교수 및 전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등 30여개 도시에서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4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전문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내외 창의도시들과 유네스코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에 걸맞은 창의도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속적인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크게 20일 열리는 ‘국내창의도시 워크숍’과 내일로 예정된 ‘음식 창의도시 전주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창의도시 워크숍은 국내창의도시 간 업무협약식과 Jyoti 유네스코 본부 창의센터국장의 기조연설, 해외창의도시 협의체 사례발표, 국내 창의도시의 발전방향을 위한 종합토론 등이 예정돼있다.

특히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이천(공예·민속예술),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광주(미디어아트), 경남 통영(음악)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국내 6개 도시들은 △협력사업 개발 △창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학술행사 △후보도시와 교류 및 지원 등 국내



지진이닷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이 19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지진훈련경보 발령과 함께 3분 동안 책상 밑으로 대피했던 본청과 시의회 직원들이 지진 훈련경보 종료 방송이 나오자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하게 노숙광장으로 대피를 하고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마지막 날인 21일 열리는 음식창의도시 전주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협력방안’과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제안’의 두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에는 참석자들이 음식 창의도시 협력방안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세계기식시존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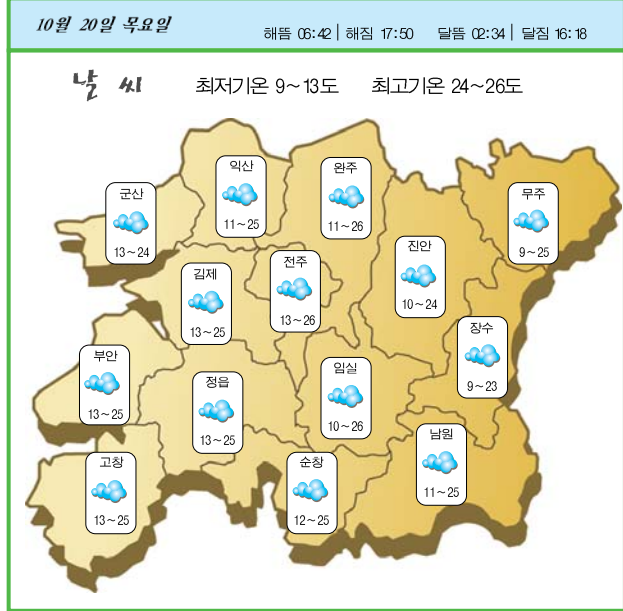
주제발표 △세계음식관광협회장의 창의센터비즈니스-시민과의 관계 발표 △음식창의도시 간 협의사항에 대한 후속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주음식(비빔밥)을 주제로 참가도시 및 관계자들에게 전주음식의 우수성과 과학성,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년간 지역 전문가와 프랑스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비빔밥의 과학적 접근과 세계화의 소통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조티(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본부 창의센터국장의 요청에 의해 ‘지속가능한 창의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 전문가와 폭넓은 의견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의 생태도시계획과 전주푸드 2025플랜, 선미촌 문화재생산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창의도시 전주의 역할과 비전이 무엇인지 토론 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주대, 호남지역 사립대 중 1위

전주대학교가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국내 전체 사립대학 중에는 영남대가 1위, 전주대는 9위를 차지해 호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대는 이번 평가에서 ▲강의 규모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평가에서 국·공립·사립대학 통틀어 전국 9위에 랭크되는 등 교육여건 부문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창업교육 비율 전국 1위, 현장 실습 참여 학생 비율 10위 등 산학협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우수 교육중심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여성친화대학 평가에서 '상' 등급을 획득했다.

이근호 기획처장은 "대학의 창업지원단, IUNC 사업단 등과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힘을 쏟은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특성화고 창업전람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2016 특성화고 창업전람회'를 내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번째인 '2016 특성화고 창업전람회'는 특성화고 창업동아리의 성과를 소비자와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의 기회를 교육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및 비즈니스 운영학교와 학교기업 운영학교들이 참여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창업동아리 및 학교기업 47팀이 참여해 창업아이템을 발표하고, 물물교환, 고객과 함께하는 경매 등 부대행사로

진행한다.

3D CAD프로그램과 STL 변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작한 생활용품과 캐릭터 피규어, 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든 필기구, 양말·가죽 등을 활용한 공예품 등 학생들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고객과 만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행사는 창업을 꿈꾸는 특성화고·미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টে에 대한 사업성도 확인해 봄으로써 '미래 CEO'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덕진구, 옥외간판 일제정비

주인 없는 간판 있는 경우 건물주·관리자 등 신청·접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관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영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해 주인 없이 방치된 옥외간판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사업은 주인 없이 방치된 흉물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간판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정비를 위해 덕진구는 이달 말까지 중 주민센터와 구청 생태도시과

에서 신청접수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정비 대상지 현지 실사를 통해 철거대상 선정 후 철거 장비 임차 용역 시행으로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덕진구는 미정비된 주인 없는 간판이 있는 경우 건물주, 관리자 등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덕진구는 주인 없이 방치된 옥외간판을 23건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주인 없이 방치되고 노후로 파손된 옥외간판 등 각종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간판 정비사업과 함께 각종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